

# 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폭증

### 화장·장례시설 못 구해 발에 매장 춘제 이후 감염·사망 정점 달할 듯 전문가 "아직 최악 상황 아냐" 경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과 장례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제 발표 중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급속한 감염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한 장례식 참석자를 인용해 상하이 등화 화장시설의 경우 평소 가능한 수준보다 5배 많은 하루 500구 이상의 시신을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격식을 갖춘 이별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듯 화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동 화장도 해야 하는 탓에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화장시설의 직원은 "지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7일 중국 당국이 기존의 '제로 코로나' 조치를 대거 완화한 10개 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과 지방 정부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발표하는 상황을 짚어보면, 지난달 7일 이후 3주 만에 중국 각 성과 대도시 인구의 50~90%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정보분석업체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9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수억 명의 인구가 예상되는 이달 22일 춘제(春節·음력 설)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감염

증가가 예상돼 사망자 수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미 주요 도시의 화장·장례 시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화장·장례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유족들은 야산과 빈 밭을 찾아 매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런 사연을 소셜미디어 유허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전염병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집에 둘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부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그룹의 부총재를 지냈고 공유오피스 사업체인 유코문을 운영했던 마오다칭은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유허 공개 계정에 "화장과 매장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이게 바로 베이징의 현

상태"라고 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브레인인 통하는 후안강 칭화대 교수도 최근 장인상을 치르면서 구급차부터 화장·장례시설을 확보하려고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비용도 큰 문제다. 화장·장례 시설은 한정돼 있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평소 같으면 몇천 위안이면 가능했던 화장 비용이 사흘 이내 처리 시 6만8천위안(약 1250만원)에서 당일 처리 시 8만8천위안(1620만원)을 요구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한 유족의 얘기를 전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고가를 치르지 않으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화장시설 직원의 말을 듣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처럼 치솟는 장례비용이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3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응급 병동 로비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제 발표 중단으로 정확한 감염자 수를 알 수 없지만 급속한 감염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및 장례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팬들 작별 인사 속에 이동하는 펠레 운구 차량. 암 투병 중이었던 '축구황제' 펠레의 운구 차량이 3일(현지시간) 브라질 산투스 빌라 베우 미루 축구장에서 출발해 팬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 속에 공동묘지로 이동하고 있다. 고인은 이 축구장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24시간 추모행사 이후 인근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 '겨울 실종' 유럽 곳곳 역대 최고 기온

### 눈 부족에 알프스 등 스키장 휴업

이번 겨울 북미 대륙에서는 이례적인 눈 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반면, 유럽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치솟아 겨울이 '실종'되다시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CNN은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해 첫날 유럽에서 최소 8개 국가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다.

이달 1일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바두츠는 섭씨 20도까지 올랐고, 체코의 야보르니크는 19.6도, 폴란드의 요드워브니크는 19도를 찍었다.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이외 지역에서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세계 전역의 극한 기온을 추적해온 에레라는 "유럽 역사상 가장 극심한 열파"라고 설명했다. 평년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작년 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종종 눈으로 뒤덮였던 도시들이 여름에 나눌 수 있는 기온을 한겨울에 경험했다고 전했다.

영국 기상청은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따뜻한 기단이 유럽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이상 고온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에레라는 단 이틀 사이에 섭씨 5도 이상의 차이가 그간의 기록을 모두 갱낸 것은 전례 없던 일이라며 "유럽이 미증유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 고온 탓에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스키장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알프스산맥 전역에서 나타난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스키 시즌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뉴스

## 89명 몰살당한 러시아군에 자국내 비판 확산... "과실 범죄"

### "전쟁 초기에나 하는 실수"

### 푸틴은 여전히 비판에서 제외

우크라이나군에 허를 찔러 한꺼번에 100명 가까운 장병의 목숨을 잃어버린 러시아에서 당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괴뢰정권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지도부 출신 파벨 구바레프는 징집병들이 한 건물에서 몰살당한 데 대해 "전쟁 초기에나 저지르던 실수"라며 "(군 수뇌부의) 과실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실수는 전쟁 초기에 저지르던 것이다. 설령 신병들이 잘못된 것을 몰랐다면 하더라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군의 발표를 종합하면 새해 전날인 작년 12월 31일 도네츠크주 마키우카의 신병 임시숙소가 우크라이나의 고속기동포병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군은 장병 89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사망자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장병들이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어기고 상대방 무기 사거리 안에서 전원을 켜고 대항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메드베데프 모스크바 지역의회 부의장은 텔레그램에서 사건에 대해 지휘관이 아니라 일선 병사들 탓을 할 줄 알았다면서 "병사를 한 곳에 몰아 놓은 것은 지휘관"이라고 수

뇌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제에 대해 침묵한 사람들, 사망한 병사들에게 맞을 돌리려 한 사람들의 이름들, 역사는 분명히 기록해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군사 관련 블로거들이 이런 비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 반정부 언론·정치인이 탄압당하거나 해외로 추방당하는 사이 블로거들이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러시아의 한 군사블로거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러시아를 위하 사랑해서 당신의 측근 중 특정 인물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요미우리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 처형된 듯"

### 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리 전 외무상이 숙청된 시기에 대해 "작년 여름부터 가을 무렵"이라고 전했다.

리 전 외무상의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5명이 연이어 처형됐다는 정보도 있다. 숙청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리 전 외무상을 포함한 북수의 인물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처형의 배경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추정했다. 이 대사관은 2016년 태영호 당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처형된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가까운 외교관 중 일부는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 인사에게 토로하는 등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외의 군무 중인 외교관이 동요해 망명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리 전 외무상 처형 보도와 관련해 "2020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형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리용호 전 외무상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 대표를 역임한 '미군통'으로, 2016년 외무상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